

# PHOTO ESSAY

사진산책



황진영

## 중간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중간. 일상과 심의 중간 같은 사진.  
특정 주제나 내용에 치우치지 않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사진

식당이나 카페, 대중교통처럼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있으면 오가는 대화의 풍경이 눈에 들어온다. 예전에 비해 거리낌없이 자기 목소리를 드러내고 주변 시선을 크게 의식하지 않은 채 이야기하는 모습이 종종 보인다. 과거에는 이런 공간에서 목소리를 낮추는 것이 타인에 대한 배려이자 기본 예절로 여겨졌는데, 요즘은 그런 감각이 조금 무뎠던 것 같다. 이는 타인의 눈치를 덜 보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사회적 흐름과도 맞아 떨어진다.

이런 흐름은 사람들이 지식과 정보를 접하는 방식이 달라진 현실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AI와 유튜브를 통해 누구나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고 자신의 생각을 뒷받침

말과 근거를 얻을 수 있다. 과거라면 오랫동안 학습해야 접할 수 있었을 생각과 견해를 이제는 비교적 쉽게 얻을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을 자신의 말로 분명하게 표현하는 일도 한층 수월해졌다. 다만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확신할수록 타인의 영역을 살피는 마음은 열어질 수 있다. 여러 사람과 함께 머무는 장소에서는 자기표현의 자유 못지않게 공간을 함께 쓰고 있다는 감각도 필요하다. 상대의 반응을 살피고 주변 분위기까지 헤아리는 태도는 타인의 존재를 존중하는 마음가짐이다. 목소리를 낮추고 말투를 부드럽게 가다듬는다면 같은 공간을 나누는 일도 훨씬 편안해질 것이다.



경남의 전통 한옥

이호준 Lee, Ho-Joon  
성공회대 강사·사진가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에서 2회 수상하고, 일곱 차례의 개인전과 여덟 번의 단체전을 개최했다. 포토에세이 <직조>와 <걸으면 보이는>을 출간했으며, 여러 월간지와 주간신문에 사진이야기를 연재했다. 다수의 인쇄, 방송 매체에 소개되었고 지자체, 공공기관, 사진모임 초청으로 사진 강연을 한다. 대학에서 사진학을 강의하고 초등학교 미디어리터러시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다.